

#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망

정보기술의 발달과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전문화되고 활용 분야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달 21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최근 발간한 '2004 데이터베이스 백서'를 기념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글 임태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 사진 이혜성 기자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기업, 개인의 정보 환경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뉴스, 기상, 교통 등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점차 전문화돼가고 있으며, 활용 영역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내 데이터베이스(인하우스 DB)는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부문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DB는 사회기반인 물류, 지리, 교통, 의료, 교육 분야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전체 DB 산업 현황 및 규모를 살펴보고, 국내 주요 DB 서비스 시장과 확대되고 있는 DB 활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향후 DB 산업의 모습을 전망했다.

## 데이터베이스 시장규모 4조1,481억원

지난해 국내 DB 총 시장규모는 4조1,481억원으로, 유통 부문이 1조6,772억원(40.4%), 기술 부문이 1조5,182억원(36.6%), 제작 부문이 6,872억원(16.6%), 사업지원 부문이 2,655억원(6.4%)을 기록했다. DB 산업시장 파악은 2002년까지는 온라인/모바일 DB서비스(유통 부문), DBMS(기술 부문)에 국한돼 이뤄졌으나 DB를 둘러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분류 및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조6,147억원 규모로 파악된 지난해 DB서비스 시장은 특히 모바일 DB서비스 부문이 급성장하며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온라인 DB서비스 시장은 인터넷의 확산과 유료 정보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3~4년간의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전문화된 특화정보의 발굴 및 고품질 정보를 통해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에 성공해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주요 8대 DB서비스 부문은 금융, 법률, 특허, 기업, 무역, 통계, 학술, 기상 정보 등이며, 최근 국내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취업, 교육, 의학, 입찰정보 부문도 부각되고 있다.

최영훈 광운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DB 서비스는 90년대 PC통신 기반에서 출발해 현재 인터넷 기반으로서 서비스가 정착됐으며, 최근 모바일 부문이 새로운 시장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u코리아 비전 2006 등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맞물려 디지털홈 기반에서 DB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DB 활용 부문은 크게 인하우스, 사회기반 구조의 활용, 모바일, 디지털홈, e비즈니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부문에서는 원격 진료, e북, 무선인터넷 서비스, 필드 포스 오토메이션(FFA), 세일즈 포스 오토메이션(SFA)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권기식 한국오라클 본부장은 세미나에서 KT(인하우스 DB), 국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사회기반 구조 DB), 한국알리안츠생명(모바일 DB), 이집트코카콜라보틀링(모바일 DB), 자가진단 DB등의 활용 및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드(Grid)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유럽의 원자력 연구소인 CERN 사례를 통해 그리드 활용 효과를 피력했다. 권기식 본부장은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해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기간 단축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에 맞는 DB 활용 부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 다른 내용은 '2004 DB 백서'에서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